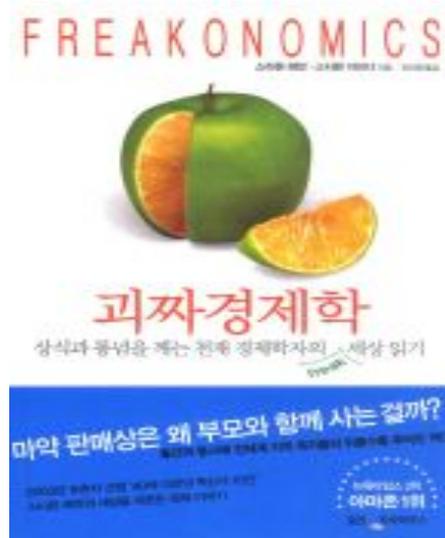


독서발표자료

e-HRD 사업본부 김영훈

8/26/2005

Steven D. Levitt & Stephen J. Dubner의  
FREAKONOMICS (괴짜 경제학)



## 지은이 소개:

Steven D. Levitt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최우수 졸업. 동 대학원 최우수 석사학위 취득. MIT 박사학위 취득. 현재 시카고 대학 경제학 교수. 2003년에는 미국의 '예비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았으며, 2003년 포춘지 선정 '40세 미만의 혁신가 10인'에 선정.

Stephen J. Dubner

현재 뉴욕에 거주하며, <뉴욕 타임스>와 <뉴욕커>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저자.

## 목차

들어가며: 세상의 숨겨진 이면을 찾아서

1. 교사와 스모선수의 공통점은?
2. KKK와 부동산중개업자는 어떤 부분이 닮았을까?
3. 마약판매상은 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까?
4. 그 많던 범죄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5. 완벽한 부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6. 부모는 아이에게 과연 영향을 미치는가?

## 들어가며: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현대사회의 삶의 표층을 벗겨내어 그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해답을 데이터속에서 찾는다. 우리는 다른 연구들에서는 종종 고려되지 않고 간과되는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내서 활용하는 것이다. 어떤 주제를 놓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론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다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견지를 정직하고 공정한 데이터의 평가로 대체할 때, 종종 참신하고 놀라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윤리학이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세상을 대표한다면 경제학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적인 세상을 의미한다. 경제학은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학문의 상위에 위치하며, 두서없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보를 신뢰성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융통성있는 도구로 구성되어있어 한 요인이 미친 영향 혹은 전체적인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책의 몇가지 기본 전제:

첫째, 인센티브는 현대의 삶을 지탱하는 초석이다. 인센티브를 이해하는 것, 혹은 그것을 탐색하는 것은 왜 스모 선수와 학교 선생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승부조작과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둘째,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사회 통념 가운데는 잘못된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 하루에 물 여덟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거나 선거에서 돈은 후보자의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결론은 이를 반영한다.

셋째, 전혀 예상치 못한 극적인 결과는 흔히 거리가 멀고 미묘한 사건을 원인으로 한다. 1990년대에 미국의 범죄율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완벽한 치안 유지보다는 낙태의 합법화라는 뜬금없는 사건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넷째, 범죄학자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이른바 ‘전문가’들은 정보의 우위라는 강점을 자기 자신의 아젠다를 위해 사용한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게임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가끔씩 연출하곤 한다. 결국 전문가들은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유한 정보를 이용하여 적절한 선에서 서비스를 부여해주는데, 인터넷 시대에서는 그 한계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알면 복잡한 세상이 훨씬 단순해진다. 적절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면, 그 전에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수수께끼들까지 풀 수 있게 된다. 혼란과 모순의 껍질을 벗겨낼 수 있는 도구로 숫자의 힘을 능가할 만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1. 교사와 스포츠선수의 공통점은?

### 인센티브란 무엇인가?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센티브는 단순히 말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적게하도록 설득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경제학자나 정치가 혹은 부모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센티브는 그 특색에 따라 기본적으로 세가지로 나뉜다.

- 경제적 인센티브
- 사회적 인센티브
- 도덕적 인센티브

하나의 인센티브 도식은 대개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금연운동

인류가 발명한 인센티브 가운데 가장 위압적이고 강제적인 것들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왜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답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센티브다.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인센티브를 결합하여 만든 복잡하고 임의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물망을 통해 현대사회는 최선을 다해 범죄와의 전쟁에 임하고 있다.

### 누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가?

부정행위는 인간의 각가지 노력 가운데 특출한 재능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부정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행위이다. 적은양으로 더 많이 얻는 것.

대표적 예) 1987년 어느 봄날 밤 12시에 일어난 미국 어린이 700만명 실종 사건

### 교사와 시험.

No Child Left Behind Law 법안 인준과 더불어 미국 전역 모든 학교에서 고부담 시험 실행 (이 시험은 단순히 학생들의 성취정도를 측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들의 시험성적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고부담”이라 불린다.

고부담 시험 옹호자들은 엄격한 시험제도가 학습기준을 높이고 공부에 주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적이 나쁜 아이들이 진급에 실패하면 학년 평균점수가 올라갈것이고 다른 훌륭한 학생들의 학업에 방해도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반면에 그 반대편을 선 사람들은 시험성적이 나쁠경우 일부 학생들의 부당한 취급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교사들 역시 중요한 지식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고부담시험은 교사들의 인센티브마저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이제는 교사들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를 '이유'를 지니게 되었다. 고부담 시험의 경우, 가르치는 학생들의 성적이 나쁘면 교사는 비난을 받고, 승진이 연봉인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교사의 부정행위: 시카고 공립학교의 예)

시카고 공립학교들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연간 200개 이상의 학급에서 부정행위가 저질러진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전체의 5%에 가까운 수치이다.

## 스모선수와 승률

스포츠와 부정행위

1989년 1월에서 2000년 1월에 이르는 일본에서 가장 훌륭한 스모선수들이 치렀던 모든 공식경기의 결과 즉 281명의 스모선수들 사이에 있었던 약 3만 2000건의 시합에 관한 데이터가 연구에 이용

스모를 지배하는 인센티브 도식은 난해할뿐만 아니라 극도로 강력하다. 스모에서 선수들의 순위는 그의 인생전반을 지배한다.

일본에서 상위 66위 안의 스모선수들은 일종의 엘리트 그룹으로 1부 리그격인 마쿠우치와 그보다 한등급 아래인 주료서 시합을 치른다. 상위 40안에 포함되는 선수들은 적어도 1년에 약 17만 달러를 벌지만 70위 선수의 수입은 겨우 1만 5000달러다. 이렇게 중요한 스모 선수들의 순위는 1년에 여섯 번 열리는 정규대회의 결과로 결정된다.

각각의 선수들은 대회가 열릴 때 마다 열다섯 번의 시합을 가지는데, 대회는 15일간 계속되므로 하루에 한경기를 치르는 셈이다. 8승이상의 전적으로 대회를 마치면 순위가 상승하며 7승이하의 전적으로 패배하면 순위가 하락되어 엘리트 그룹에서 밀려난다. 따라서 스모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합은 8승째를 가르는 순간이다.

7승7패 선수가 8승6패 선수를 맞아 시합에서 이길 확률	7승7패 선수가 8승6패를 선수를 맞아 실제로 시합에서 이긴 확률
48.7%	79.6%

7승7패 선수가 9승5패 선수를 맞아 시합에서 이길 확률	7승7패 선수가 9승5패를 선수를 맞아 실제로 시합에서 이긴 확률
47.2%	73.4%

#### 무인 베이글 판매대의 교훈

- 폴 펠드먼은 워싱턴에서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돌며 아침마다 베이글상자와 돈 받을 바구니 하나를 사무실 휴게실에 가져다 놓았고, 점심시간이 되면 돈과 남은 빵을 수거해갔다. 이른바 무인판매시스템.
- 돈 수거용 상자는 1년동안 도둑 맞은 적이 없었다.
- 베이글 대금을 90% 이상 지불한 회사를 정직한 회사로 분류. 80-90%를 기록한 회사는 짜증나지만 그래도 참을 만한. 80%이하를 기록한 회사는 메모남김.
- 규모가 작은 회사가 대기업보다 훨씬 더 정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00명이하 사업장은 수백명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회수율이 3-5%나 높았다.
- 베이글 데이터는 개인의 순간적인 감정과 기분이 정직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날씨는 주요요인 가운데 하나. 계절아 맞지 않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날씨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한다. 반면에 이상하게 추운 날은 부정행위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으며,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도 마찬가지. 최악의 경우는 휴일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이다.

## 2. KKK와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떤 부분이 닮았을까?

### Ku Klux Klan (KKK)

- 스테드슨 케네디의 활약
- KKK는 그들이 지닌 폐쇄적인 정보덕분에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그리고 그 정보가 잘못된 손 혹은 올바른 손에 넘어감으로써 그들은 강점이자 특권을 잃어버린 것이다.

### 정보의 비대칭

- 정보는 봉화이자, 몽둥이이자, 올리브 가지다. 중요한것은 그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냐 하는 점이다. 정보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하여 그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정이나 추측만으로 무서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어떤 정보를 거래할 때 흔히 특정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더욱 유용하고 훌륭한 정보를 지니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경제학자의 용어를 빌리자면 “정보의 비대칭”이라 불린다. 우리는 누군가 (대개의 경우 전문가)가 다른 사람들 (고객이나 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자본주의의 진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출현으로 인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은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다. 전문가와 대중사이에 존재하던 격차를 엄청난 수준으로 축소시킨 것이다.
- 인터넷은 전문가가 정보 비대칭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더욱 값지게 작용한다. 그들이 자신만의 전유물인 정보의 우위를 이용해 우리를 어리석고 성급하고 저급하고 비참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상황말이다.
- 미국기업 스캔들: 엔론. 월드컴과 글로벌 크로싱의 분식회계
- 많은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일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설혹 당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너무나 혼란스러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르고 허둥댔 거라고 가정하며 당신이 전문가의 전문성에 감탄한 나머지 감히 저항하거나 대들지 못하리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는 법

- 부동산 중개업자는 정보비대칭의 모든 이점을 활용한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직도 고객의 집을 팔때보다 자신의 집을 팔 때 더 높은 가격을 받지만 부동산 웹사이트의 확산으로 인해 그

두 가격사이의 차이는 3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진실이 아니다.  
예를들어 인터넷 데이트 주선 사이트.

### 3. 마약판매상은 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까?

사회통념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경제학자는 여기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진실을 편익과 연관시킨다” 그는 이렇게 썼다. “진실을 이기심과 개인의 안녕 혹은 미래와 결부시킴으로써 인생에서 자신 없는 일이나 원치 않는 일탈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데 기여하는것이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경제적인 행동과 사회적인 행동은 매우 복잡하고 그 특성을 이해하는 작업은 지적으로 대단히 지루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뗏목에 매달리듯 우리의 이해를 대표하는 생각들에 매달린다.”

언론과 전문가라는 두 진영은 서로 합작하여 사회통념의 창조가 된다. 광고 역시 통념을 만들어 내는 경이적인 도구다.

- 사회학자 수디르 벤카데시는 갱스터의 생활을 연구하기 위해 6년간 갱스턴 조직원들과 생활한다. 그리고 어느 한 갱스턴 한 조직원으로부터 4년에 걸친 마약판매 재무제표 회계장부를 넘겨받는다.
- 그 결과, 전국 조직까지 갖춘 갱스터들의 피라미드식 먹이사슬은 미국 기업과 대단히 유사하며 그중 맥도널드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카고 지부의 한 보스인 JT가 한시간에 66달러씩 수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 거리에서 체포와 폭력, 그리고 살해의 위험 (마약 판매 조직원들이 죽을 확률은 33%으로 텍사스에 수감돼 있는 사형선고자의 확률 5%보다 훨씬 높은 고위험 직업)을 감수한채 코카인을 파는 마약 판매 조직원들은 3.3달러를 번다. 이는 맥도널드의 아르바이트 학생의 경우와 비슷하다.
- 마약 판매상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른 화려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적은 상품을 두고 경쟁을 벌임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마

약관매를 통해 부자가 되는 것은 위스콘신 출신의 시골뜨기 아가씨가 할리우드 스타가 되거나 고등학교 미식축구부 쿼터백이 NFL에서 뛰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다른 모든 평범한 사람들처럼 범죄자들 역시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어떤일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다수 존재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분야의 임금은 그다지 높지 않는 법이다. 일자리에 대한 인력공급량은 임금을 결정하는 네가지 중요한 요인중 하나다. 나머지 세요인은 그 일에 필요한 특수한 기술과 그 직종이 자아내는 불쾌감, 그리고 만족시켜야 하는 서비스의 수요량이다. 예를들어 매춘부가 평범한 건축가 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것을 설명.

#### 4. 그 많던 범죄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2001년에 발표한 낙태에 관한 논문에서 1990년대 미국에서 청소년 범죄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경기회복, 총기규제, 경찰인원의 증가, 강력한 치안정책등이 아니라 20년전 (1973년) 법적으로 허용된 낙태에 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낙태가 허용되면서 저소득층 여성들이 낙태수술을 받았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인구를 감소시켰다는 통계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발표는 모든 이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보수주의자들은 낙태가 범죄예방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진보진영은 가난한 흑인여성이 낙태의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사실에 대경실색했다. 저자는 이념주의자, 인종개량론자, 인종차별주의자, 지독한 악당등으로 낙인찍혔다.

#### 5. 완벽한 부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아이들에게 위험한 것은 총이 아니라 수영장이다. 집에 총기가 있고 뒤뜰에는 수영장이 있다면, 수영장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할 확률이 총기보다 100배 정도 높다.
- 수많은 연구가 이미 유전적 요인으로만 아이의 인성과 능력의 50% 정도가 결정된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 245명의 입양아이를 통해서 아이의 성격 특성과 수양부모의 성격

특성은 실제로 아무 관련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 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들은 자신이 자녀의 성격형성에 중대한 공헌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주장. 또래나 학교 친구들이 매일 미치는 암묵적인 힘이 부모로 전해지는 영향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 학업과 특별활동, 친목, 안전의 요소가 적절히 조합된 제대로 된 학교에 가기만 하면 아이가 훌륭히 성장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결과 학교선택권이 사실상 거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 부모와 아이 성적의 상관관계: 1990년대 후반 미 교육부가 실시한 ‘아동 성취도 발달에 관한 장기적 연구(ECLS)’ 결과를 인용하며 그는 성취도 발달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로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 '여성의 첫 출산 나이가 30세 이상이다', '아이의 출생당시 몸무게가 적었다', '아이의 부모가 집에서 영어를 쓴다', '입양된 아이다', '집에 책이 많다' 등을 골라냈다. 반대로 상관관계를 거의 없는 요소는 '가족 구성이 온전하다', '최근 주변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했다',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에 다니기까지 엄마가 직장에 다니지 않았다', '아이가 tv를 많이 본다', '부모가 아이를 자주 박물관에 데려간다', '부모가 아이에게 거의 매일 책을 읽어준다'였다.
- 위에 첫번째 목록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한다. 반면에 두번째 목록은 부모가 아이에게 해주는 일을 묘사한다. 중요한 건 아이를 가르치기 오래 전에 결정된 상황이 아이의 성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며, 누구와 결혼했으며, 어떤 삶을 이끌어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이다.

## 6. 부모는 아이에게 과연 영향을 미치는가?

- 아이에 지어지는 이름조사: 부모가 아이에게 붙이는 이름에는 재산과 교양의 정도가 반영된다. 예를들어, 저자에 따르면 부유층 가정에서 가장 흔한 여자아이 이름은 알렉산드라, 로렌, 캐서린이고 빈곤층의 경우에는 앰버, 헤더, 케일라이다. 그러므로 앰버보다는 알렉산드라가 나중에 잘 살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부유층이

사용하던 이름이 점차 빈곤층으로 확산되고 부유층은 새 이름을 택한다.

무엇보다 발상의 전환이 문제다. 고장난 기계를 둘러싸고 수십명의 엔지니어가 엮치락 뒤치락 난리판을 벌이고 있을 때 누군가 기계의 전기코드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도 있는것이다. 뜬금없는 곳에서 문제핵심을 찾아내고 이제껏 믿어왔던 사회통념들이 정반대로 뒤집혀 질 수 있다.

이 책에는 정말 “하나로 통합된 중심주제”가 전혀없다.

이 책을 읽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아주 단순하다. 바로 스스로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중 대다수는 아무런 소득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는 실제로 얼마나 중요할까?

최상의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무작위성이라는 거대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자신이 어느모나 전형적인 사람이라 해도 지적이며 현실적인 부모의 자녀가 심하게 탈선하는 경우애 대해 익히 알고 있을것이다. 반면에 의지도 없고 습관도 나쁜 부모의 자녀가 큰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두소년의 예로서, 시카고의 외곽에서 자란 백인소년의 부모는 현명하고 건실하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사랑해주었으며 교육과 가정을 강조했다. 한편, 플로리다 출신의 흑인소년은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는 구타를 당했으며 10대 대에는 폭력조직에 깊이 개입한적도 있었다.

현재 스물일곱이 된 두번째 소년 롤랜드 프라이어 주니어는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가 되어 “흑인들의 낮은 성취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첫번째 백인 아이 역시 하버드에 갔다. 하지만 그후 그의 삶은 잘못 돌아가기 시작했다. 소년의 이름은 테드 카진스키 일명 유나바머로 17년동안 폭탄 테러로 온 미국을 공포에 떨게 만든 장본이다.